

종이거저귀 사용 급증 환경오염 부채질

YWCA 29개 도시주부 대상 조사결과...79% 사용경험

접착테이프 분해에 5백년...오물·종이 분리해 버려야

정상영 기자

지난해 지구상 어딘가에서 8백52만4천그루의 나무가 우리나라 아기의 일회용 종이거저귀감으로 잘려나갔다.

우리나라의 일회용 종이거저귀의 시장은 편리함을 좇는 주부들의 소비의식과 이를 부추기는 기업의 판매전략에 따라 급성장 곡선을 긋고 있다. 90년의 6백억원에서 94년 2천5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4년 동안 400%의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해 11억8천4백개가 팔렸다.

우리나라는 특히 펄프를 모두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

여서 국내의 종이거저귀 사용증가는 세계 삼립 파괴와 함께 외화낭비도 상당히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종이거저귀를 마구 버리는 데서 오는 심각한 환경오염 또한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YWCA 연합회와 서울YWCA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29개 도시에 사는 1~3살 사이 아기를 둔 주부 1,266명을 대상으로 '일회용 종이거저귀의 사용실태 및 환경영향에 대한 의식조사'를 벌여 8일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66.3%가 일회용 종이거저귀와 형질거저귀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종이거저귀만 쓰는 주부도 12.9%나 되는 등 전체 주

부의 79.2%가 종이거저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도시에 비해 서울, 부산 등 전국 6대 도시의 주부들이 더 종이거저귀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력과 생활수준이 높고 직업을 가진 젊은 주부층일수록 종이거저귀를 찾는 경향이 많아 다른 층에 비해 비교적 많은 숫자인 하루 평균 3.14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부들이 종이거저귀를 찾는 까닭은 간편하게 사고 휴대할 수 있고(31.1%), 세탁하지 않아 편해서(17.1%), 가사노동 시간이 절감된다(14%)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종이거저귀를 쓰고 난 뒤 오물과 거저귀를 분리하지 않은 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절반을 넘으며(57.9%), 버릴 때 비닐에 넣어서(45.5%) 처리하기도 하지만 그냥 버리는 경우(22.7%)도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이거저귀를 버릴 때는 오물과 종이부분을 분리해 오물은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종이부분은 종이에 싸서 버려야 한다. 그냥 버릴 경우 오물이 땅과 물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거저귀의 접착테이프가 땅에서 분해되는 데 약 5백년이나 걸릴 정도로 심각한 공해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종이거저귀는 펄프의 표백 과정에서 다이옥신이라는 발암성분이 발생하고 통풍이 잘 안되어 연약한 아기의 피부를 상하게 하는데, 실제로 응답자의 72.5%가 가끔(58.5%) 또는 자주(12.6%) 이러한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또 주부들은 주로 텔레비전(35.5%)이나 잡지(14.3%)와 광고유인물(10.9%), 신문(9.6%)을 읽고 종이거저귀를 알게 되었다고 응답해 방송 및 인쇄매체의 광고가 주요한 유인동기가 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조사를 주도한 이명희 서울YMCA 환경특별위원회장은 "제조업체들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새로

지난 8일 YWCA가 개최한 일회용 종이거저귀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보고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주부의 80%가량이 종이거저귀를 쓰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 및 아 기건강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운 소재의 거저귀를 개발하는 한편 광고를 자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의식변화라고 강조하면서 주부들이 편리함에 매달리지 말고 환경오염과 아기의 건강을 더 생각해서 형질거저귀를 사용하도록 권유했다.